

# 귀농귀촌 활성화 정책 '눈길'

### 무주군, 농촌에서 살아보기·게스트하우스 운영 등 다양한 정책 실시

무주군이 도시민을 대상으로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귀농귀촌 정책이 눈길을 끌고 있다. 농촌에 거주하면서 일자리, 생활 등을 미리 체험하고 주민과의 교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귀농귀촌 결정에 자신감을 주는 취지에서다.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은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 동안 진행될 예정으로 올해는 특히 귀농 중 특화된 품목을 장기적으로 실습한다. 지역의 대표작목 생산을 위한 '준비부터 출하까지' 영농체험 프로그램으로 구성해 추진될 예정이다.

'농촌에서 살아보기' 참가자 모집은 오는 20일까지 귀농귀촌종합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며, 선발과정을 거쳐 참가자를 확정된 뒤 4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참가자에게는 주거 및 연수프로그램 제공과 일자리 연계, 연수비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자는 타 시 지역 거주 도시민(18세 이상)으로서 구직급여 수령자 가족단위 참가자, 귀농귀촌교육 10시간 이상 수료자 우선 선발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군은 예비 귀농귀촌인 및 전원생활 체험을 희망하는 도시민에



무주군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입교식이 16일 진행됐다.

게 농촌 체험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귀농귀촌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한다. 12월 9일까지 운영되며, 이용 희망 7일 전 신청 후 이용이 가능하다.

최근 2년 이내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귀농귀촌 이수자(10시간 이상) 중 무주군으로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이 입주할 수 있다. 안성면 봉명로 41-2에 위치한 귀농·귀촌 게스트하우스는 115.5㎡ 규모(지상 2층)에 관리실과 세미나실, 생활실 등을 갖추고 있다.

한편, 무주군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입교식이 16일 진행됐다. 매년 도시민의 귀농귀촌 관심이 늘어나면서 올해

도 10세대가 선발됐으며, 12월까지 초보 농업인으로서의 기초 영농이론과 실습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토지, 주택 구입을 위한 법률사항과 마을주민과의 간담회, 귀농귀촌 선배와 만남의 장 등 다양한 교육을 받는다.

무주군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팀 강혜경 팀장은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과 귀농귀촌 게스트 하우스 운영,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운영으로 지역 주민과 예비 귀농귀촌인들과의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며 "앞으로도 귀농귀촌 활성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코로나19 예방접종 모습.

## 코로나19 예방접종 적극 홍보

### 장수군보건의료원, 사전 예약·위탁의료기관 방문 접종 권고

장수군보건의료원은 관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위한 적극 홍보에 나섰다고 17일 밝혔다.

보건의료원에 따르면 청소년(12~17세) 코로나19 3차 접종 간격은 일반 성인의 3차 접종 간격과 동일하며, 면역저하자는 기본접종 후 2개월, 그 외는 3개월 간격이 적용된다.

기초접종 완료 후 코로나19 확진된 청소년 확진자에게는 추가접종을 권고하지 않는다.

장수군은 3차 접종을 통한 접종 효과 강화와 청소년 고위험군 증증·사망 예방을 위해 기초접종 완료 이후 3개월이 경과한 청소년 중 증증 위험이 높은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접종을 적극 권고, 그 외 일반 청소년은 자율적인 접종 시행을 권고했다.

또한 최근 시작한 4차 접종 대상자는 ▲면역저하자와 ▲요양병원·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로 면역저하자의 범위는 코로나19 예방접종 누리집(알림·서식) 면역저하자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질병청에서 일괄 발송한 문자를 수신한 면역저하자가 그 대상이다.

이외에도 해당 기준에 준하는 면역저하자로 추가(4차)접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료기관에서 받은 면역저하질환 진료확인서 또는 담당 의사의 접종 권고를 포함한 소견서 등을 지참하면, 4차 접종이 가능하다.

이외에도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못한 만 18세 이상 성인의 경우 노바백스 접종이 가능하다. mRNA 백신 등 기존 코로나19 백신과 교차접종도 가능하다.

노바백스 백신의 단백질 항원 방식이 과거 B형간염, 자궁경부암 등에 사용된 방식이어서 부작용 등의 우려로 접종을 하지 못한 대상자들에게 환영 받고 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온라인 사전예약시스템(ncvr2.kdca.go.kr) 또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콜센터(재1339, 350-2744, 350-2663)로 사전 예약하거나 관내 지정된 위탁의료기관을 방문해 예방접종을 받으면 된다. /장수=고관호 기자

## 장수군, 금강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본격 추진

### 4억3900만원 투입 주민 복지증진 등 위한 생활환경 개선

장수군이 예산 4억 3,900만 원을 투입해 본격적인 금강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은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변구역 지정으로 인해 각종 행위 규제를 받는 장수읍, 천천면 37개 마을주민들을 대상으로 소득 증대, 복지증진 등을 위한 생활환경 개선사

업이다. 주요 지원 내용은 △농배수로 설치 및 보수 △마을공동창고 태양광설치 등 소득증대사업 △안길 포장 △마을회관 보수 △마을회관 운영비 지원 등 복지증진 사업 등이다.

이번 사업은 대상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사업의 목적과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선정했으

며, 군은 앞으로도 마을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들을 진행할 예정이다.

황현철 환경위생과장은 "장수는 금강의 발원지로 우리가 꼭 지켜야 할 상수원"이라며 "앞으로도 상수원 보호를 위해 여러 가지 행위를 제한 받고 있는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 무주군, 특화품목 전문가 육성 '팜메이트' 활동 추진

무주군은 특화품목 전문가 육성을 위한 팜메이트(팜+메이트)를 구성하고 18일부터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팜메이트 활동은 무주군 농촌진흥공무원(지도·연구직)들과 농업인들이 교류를 통해 농사현장의 어려움을 해

결하고 신기술개발과 공유, 소득향상을 위한 사업 추진을 위해 협력하는 것으로, 지난 2018년 농촌진흥공무원 멘토·멘티 활동으로 시작해 2021년부터는 농가들과 함께 활동하며 대내외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올해는 사과와 포도(사인머스켓), 복분자, 수박 등 4개 분야에서 22명의 농촌진흥공무원들이 분야별 해결과제와 농가 대상자를 선정해 전문적인 현장점검과 학습, 적극적인 농가 지원에 나선 예정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 지역 소식통

#### 무주군,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 접수

무주군은 2022년 1월 1일 기준 총 15만 3,907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4월 11일까지 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를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개별토지의 공시지가 결정을 앞두고 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가격수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다.

이번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군청 민원실 및 토지소재지의 읍·면사무소에서 이달 22일부터 가능하며, 누리집에서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및 전북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에서 가능하다.

열람한 개별공시지기에 의견이나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 장소에 마련된 의견제출 서식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군은 제출된 의견서를 감정평가업인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통지하며, 4월 29일 최종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개별공시지기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토지에 대한 단위면적(원/㎡)당 가격으로 양도소득세, 상속세 등 국세와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 그리고 각종 부담금을 산정하는 자료로 활용된다. /무주=전문선 기자

#### 진안군, 영농폐자재 무상 집중수거기간 운영

진안군은 영농철을 맞아 농경지 주변에 방치되어있는 영농폐자재를 무상으로 수거하는 집중수거기간을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수거기간은 이달 21일부터 4월 말까지 6주간이며, 수거품목은 영농 후 방치되어있는 영농폐자재 폐차광막, 폐부직포, 반사필름, 종묘포토 등이다.

또한 영농폐비닐 및 농약빈병은 환경공단에서 직접 수거해 수거보상금을 지급하는 사업도 함께 진행한다.

영농폐자재 수거를 희망하는 농민은 흙이나 이물질 등을 최대한 제거하여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고한 뒤 매립장 내 지정된 장소로 운반하면 된다. /진안=우태만 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